

學校文法論 [I]

李 喆 洙

〈本會理事・仁荷大 教授・國語學〉

I. 緒 說

1. 學校文法이란

學校文法은 文法の 用途 내지는 目標面으로 본 實用文法の 명칭이다.

實用文法은 우리의 言語生活을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규칙을 설정하고 그것을 명령하는 文法이다. 個別言語의 文法현상을 있는 그대로 記述・說明하는 科學文法 내지는 學問文法에 대립된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옳고 그름을 단정하기 때문에 언어의 時代的・地域的・社會的 位相性을 무시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주로 靑少年들에게 自國語나 外國語를 학습시킬 때, 특히 학교 교육에서 사용되는 문법이므로 學校文法 *school grammar* 또는 敎育文法 *didactic grammar* 이라고도 한다. 國語文法에서는 그 연구가 國語・國文의 整理運動과 결부되어 이루어졌으므로, 종전의 대부분의 文法書들은 敎科文法書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學校文法の 성격을 目標와 內容面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目標面에서 學校文法은, 學問文法으로서의 지식이나 文法理論을 중심으로 하는 體系文法이 아니라, 우리의 言語生活에서 실제로 직면하는 言語的 事實의 일반적 秩序, 곧 文法的 知識을 학습하고, 자신의 言語生活을 반성하는 능력을 기르며, 동시에 정확한 言語表現의 요령을 습득시키는 實用的이며 실제적인 의의를 지니는 機能文法이다.

말을 자각적으로 사용하는 일, 말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갖는 일, 文法的 意識을 지키는 일 등이 중요한 目標다. ‘文法意識’은 文法知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文法的 眼識’을 말한다. 이러한 文法意識을 발전적으로 啓發하기 위하여 필요한 文法이다. 말의 秩序性 내지는 規範性을 인식하고, 文法意識을 예민하게 하며, 文法的 知識을 살피면서 文法的 문장의 자각적인

사용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內容面에서 學校文法은, 순수文法部門 자체에서 좀 이탈된 部門 일지라도, 言語活動으로서의 表現과 理解의 능력을 기르는 것이 國語科 교육의 중요한 목적이므로 形態論과 統辭論뿐만 아니라 音韻(音聲을 포함한)·語彙·意味·待遇法·正書法 등 言語表現의 諸相에 관한 내용이 학습되어야 한다.

學校文法은 학생들로 하여금 正確하고 效率的인 言語生活을 할 수 있도록 題材를 선정하여 지도한다. 따라서 學校文法の 내용은 文法學者의 學問的研究體系일 수 없고, 어느 個人이나 學派의 獨斷적 學說이나 체제일 수도 없다. 文法을 教育的인 眼目에서 實用的인 效用性을 고려하여 교육 효용상에 근거를 두고 統一되게 體系化해야 한다. 學問의 專門性을 피하고 慣用性을 근거로 應用言語學의 側面에서 文法理論을 다루어야 한다.

W. Nelson Francis는 그의 「文法の革新」 *Revolution in Grammar* 이라는 論文에서 文法을 세가지 類型으로 나누고 세가지 부류의 文法概念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文法 1은 어떤 言語의 語들이 보다 큰 의미를 전하기 위해서 질서 정연하게 배열되어 이루어진 일련의 形式的 模型으로서 言語構造 중의 한 특수분야, 즉 文法 2의 主題를 이루는 복잡한 人間言語體系를 지칭한다. 文法 1은 個別言語의 原話者의 내면에 形成되어 있는 機構 *mechanism* 이다.

다음으로 文法 2는, 이러한 機構의 작용에 관한 研究라고 할 수 있다. 뉴턴이 사과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萬有引力을 발견하기 이전에도 宇宙引力은 여전히 作用했던 것처럼, 어느 누가 제일 먼저 意味의 규칙을 형식화하여 學問으로서의 文法の 역사를 밝히기 이전에도 文法 1은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文法 3은 언어를 사용할 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에 관하여 따지는 것으로서 文法的인 문장인가 혹은 非文法的인 문장인가의 判斷에 관심을 기울인다. 이러한 의미의 文法은 言語凡節 *linguistic etiquette* 이 중요하다. 마치 우리가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두 다리를 자유롭게 테이블 위에 올려 놓을 수는 있어도 점잖은 자리에서 이렇게 하면 예의에 어긋나는 것과 같이, 언어사용에 있어서 適正性을 문제삼는다(Paul A. Gaeng (1971), pp. 78~79).

學校文法은 프란시스가 분류한 세가지 유형 중에서 주로 文法 3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2. 學問文法과 學校文法

言語觀·文法觀에 따라 문법을 구분하면, 이른바 思辨哲學에 근거한 傳統文法和 實證論의 입장인 科學文法, 經驗論에 입각한 構造文法, 그리고 合理論에 따른 變形文法으로 大別된다.

각 文法觀의 특징을 열거하고 學校文法과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傳統文法과 學校文法

전통문법의 일반적 특징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文法이란 글을 쓰는 규칙이며, 言語를 타락에서 수호하고 통제하는 규칙적 임무를 띤 것이라고 주장한다.

② 言語는 思想표현의 道具로서 變化될 수도 矛盾도 없는 것이며, 變遷은 곧 타락이라고 보았다.

③ 모든 言語規則은 본질적으로 하나라고 생각하는 普遍文法의 성격을 지녔으며, 또한 文法은 글을 올바르게 쓰는 규칙이며, 이 규칙은 哲學者가 안출해 내는 것으로서, 문법은 이 규칙을 잘 지켜 일정하게 고정시키며, 타락에서 수호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④ 口語보다는 文語의 文法을 중시하여 權威 있는 글의 격식을 바르게 가르치는 길(規範의 태도를 취함)이라 생각한다.

⑤ 文法의 下位部門은 대개 五部門(正書法, 語形論, 文章論, 韻律論, 口頭法)이었으며, 모든 언어는 論理學의 命題인 主辭·賓辭·繫辭로 구성된 것으로 보았다.

⑥ 傳統文法에서 추구하는 文法은 直觀的 설명이었으며, 意味나 觀念에 기반을 둔 설명 방법이었다. ‘名詞는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 ‘문장은 하나의 완결된 사상을 나타내는 것’ 등과 같이 意味的·觀念的인 기준에 의한 定義들은 그 구체적 예의 하나다.

⑦ 어떤 때는 機能的 기준에서, 어떤 때는 形態的 기준에서 분류·설명하는 등 理論의 一貫性을 잃고 있다. 品詞의 定義에서 ‘副詞는 動詞를 한정하는 것’이라 한 것은 전자의 예이며, ‘動詞는 活用變化詞’라고 정의하는 것은 후자의 예다.

⑧ 傳統文法은 論理學에서 출발하였으므로 基本文에 있어서 平敘文을 기본적인 것으로 간주하였고, 이에 따라 品詞도 平敘文 속에서의 기능에 따라 규정하였고, 다른 文型도 평서문의 變形으로 설명되었다.

이상에서 열거한 傳統文法의 특성에서 學校文法의 性格과 일치하는 점은,

첫째로, 傳統文法이 實用性を 강조하고 있어서, 學校文法이 表現과 理解의 實用的인 목적을 중시하고 있는 점에서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 둘째로, 傳統文法이 規範性・統一性を 강조하고 있어, 學校文法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쓰일 수 있고, 표준이 될 만한 普遍性を 띤 규칙을 중시하며, 規範의 규칙에서 출발하므로, 傳統文法과 學校文法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傳統文法이 곧 學校文法이라는 생각은 잘못이다. 위에 든 예만 보더라도, 文法이 言語를 타락에서 수호하는 규칙이라는 생각, 言語의 變遷을 타락이라고 생각한 점, 文法規則이 위대한 哲學者에 의하여 案出된 것이라고 생각한 점, 口語보다 文語를 강조한 점 등, 여러가지가 學校文法の 성격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國文法の 傳統文法の 연구는 대부분이 學校文法을 위한 規範文法이었고, 實用的 성격에서 記述되었음은 특기할 일이다.

構造文法과 學校文法

科學文法과 記述文法の 중요한 특징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科學文法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近代 實證論 *positivism*에 입각한 學問文法으로서 說明理論文法을 계승한 理論文法이다. 科學文法の 모델은 H. Sweet에서 비롯하여 O. Jespersen에 이르러 그 頂點에 달했던 文法理論이다. 科學文法の 특징은

- ① 라틴 傳統文法에서의 脫却,
- ② 音聲言語의 重視와 論理學에서의 해방,
- ③ 意味보다 形態를 重視하고 規範性에서의 탈피와 放棄의 경향,
- ④ 言語는, 인간이 交渉・協同하는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歷史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變遷・發展하는 것이며,
- ⑤ 언어는 人間社會의 協約의 약속이므로 人爲적으로 수정,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 ⑥ 그리고 文法은 言語事實과 현상에서 관찰된 규칙이며, 그러한 이유를 반드시 考證・說明해야 한다는 理論文法の 성격을 띠었다.

한편으로 記述文法, 즉 構造文法은 經驗主義 *empiricism* 言語觀에 입각한 構造主義 言語學의 한 분야로서 共時的 記述 태도를 지닌 문법이다.

經驗主義 言語觀에 있어서 언어구조는 先天的으로 決定되는 것이 아니며, 언어는 全的으로 經驗을 통해서 習得된다고 주장한다. 人間에게는 言語習得을 위해서 특별하고 先天的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점이

合理主義 言語觀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우리가 言語를 습득한다는 사실과 우리가 배우는 언어의 구조는, 모두 우리가 어렸을 때 받은 訓練의 덕택이다. 언어습득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空白의 石板 *blank slate*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 空白의 石板에 최종적으로 쓰이는 言語體系는 無의 상태에서 構築되며, 그 구조는 經驗에 의해서만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言語의 습득은 마치 우표수집이나 포크를 사용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것처럼 文化的 被傳達事實이라 보는 見解다 <Ronald W. Langacker (1968), p. 235>.

構造文法の 특징을 항목별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전통문법이 의미를 연구의 출발점으로 하는 主觀主義 내지는 멘탈리즘에 기반을 두고 있는 데 반하여, 構造文法은 形態를 중심으로 한 客觀的 기계주의적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므로 전자가 言語의 중요한 특징이 나에게 어떻게 관계지어지는가를 설명하고자 하는 데 반하여, 후자는 言語의 중요한 특징들이 그들 상호간에 어떻게 관계지어져 있는가를 記述한다.

② 전통문법은 어떠한 文法事實이 왜 나타났으며 그것이 어떻게 운용되어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說明文法인 데 반하여 構造文法은 하나의 文法事實을 客觀的으로 觀察하고 分析하고 記述하는 分類·記述文法이다.

③ 전통문법은 여러가지의 言語階層 *level*의 혼동, 곧 中心的 概念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는데, 構造文法은 이들 階層을 명확히 하여 구별하기에 힘쓰고 다른 위상과의 交錯을 배제한다. 예를 들면 形態의 階層과 統辭的 階層을 峻別하여 형태적 분석 다음에 통사적 분석으로 옮기는 것과 같은 것이다. 言語單位의 分析의 階層을 혼동했던 전통문법과는 달리, 구조문법은 여러가지 分析階層을 구별하고 있다.

④ 전통문법이 라틴文法の 理論에 따라 論理學이나 思辨哲學 등의 추상적인 것에 근거하며 意味·言語外的 기준에서 출발하는 데 반하여 구조문법은 철학적 思辨을 배제하고 言語內的 관계의 기준에 대폭적으로 依存하고 있다.

⑤ 傳統文法이 西歐言語를 대상으로 하여 文字言語를 중시한 데 반하여, 構造文法은 아메리칸 인디언과 같이 文字가 없는 민족의 言語를 연구대상으로 한 데서 발달된 관계로 口語(音聲言語)가 중심이 되었다.

⑥ 전통문법은 記述方法이 다분히 直觀的이고 추상적 진술에 가까운데 구조문법은 客觀的이며 유형 형성적이며 言語資料에 의하여 증명 可能하다. 歸納的이며 上向的이다.

⑦ 構造文法은 人文科學의 性格의 傳統文法을 自然科學의 經驗科學의 방

향으로 轉移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科學文法과 構造文法에서 定義하는 文法의 概念은 다음과 같다. 즉 文法이란 言語의 사실과 현상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서 觀察·分析·記述하는 規則이며(實證論의 입장), 言語資料에서 構成의 分類과 目錄을 작성하는 작업이다(經驗論의 입장).

있는 그대로의 言語事實을 記述하고 설명하려는 文法學은 學問文法으로서의 記述文法이다. 規範性和 實用性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심지어는 일시적인 잘못 쓰인 말까지도 연구의 대상으로 하여 分析·記述하려는 태도를 고수한다. 이러한 점에서 學校文法과는 성격이 다르다. 學校文法이 實用性·規範性에 의한 規則에서 출발하려는 것이라면 記述文法은 있는 그대로의 言語事實에서 출발하며 여기에서 體系의인 것을 찾으려고 한다.

그러나 學校文法에서 제공하는 規則은 가공적이거나 공상적인 것이 아니며 學校文法에서 제공하는 言語事實은 가상적인 것이 아니다. 역시 科學的이며 記述的 研究의 결과를 이용하는 것이다. 실지의 言語事實에 토대를 두고 그 言語事實에서 規範이 될 만한 規則만을 선택하여 教育한다는 점만이 다를 뿐이다.

있는 그대로의 언어 사실에서 출발하여 歸納의인 방법으로 文法體系를 세워 나가는 것이 科學的 記述文法이라면, 學校文法은 이 記述의 결과에서 모범이 될 만한 規則의 사실을 정화하여 이 規範的 事實에 따라 言語生活을 하기를 요구하는 演繹的 文法으로 운용하는 것이 다르다. 學校文法에서는 言語事實을 토대로 하여 歸納的 方法으로 規則을 이끌어내는 것은 교육상 매우 중요한 일이다.

學校文法과 記述文法은 서로 密接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성격을 달리 한다. 構造文法(記述文法)·科學文法 등은 科學的 學問文法이며 學校文法은 그 중에서 實用性·規範性을 고려하여 선정된 規則을 教育하는 應用文法이다.

變形文法과 學校文法

Chomsky(1957)는, 言語分析의 目標은 個別言語의 文法的 문장을 非文法的인 문장으로부터 구별하고 文法的인 문장의 구조를 보이는 데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文法이라는 것은 文法的인 문장만을 生成하고 非文法的인 문장은 절대로 생성하지 않는 일련의 규칙이라고 말한다. 言語習得의 理論에 있어서 變形文法은 合理論에 근거하여, 어린이가 말을 배우게 되는 것은 人

間에게 先天的으로 言語能力이라고 하는 生得的 *a priori*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言語經驗의 機能은 언어를 형성한다는 것보다 오히려 生得的인 言語能力을 활동하게 하는 일이다. 모든 가능한 言語體系의 靑寫眞은, 모든 어린이가 가지고 태어나는 先天的인 神經 장비의 일부로서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학습의 역할은 최소한도라는 것이다. 어린이는 자기의 주위에서 쓰이는 언어를 다른 가능한 人間言語로부터 구별해 주는 構造上의 細部를 배우기만 하면 된다. 자기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言語體系와 骨格에 살을 붙이기만 하면 된다. 言語들을 표현상 구별하는 지엽적 構造上의 細部가 환경의 영향을 바탕으로 습득되는 것이다. 言語學의 課題는 바로 이 言語能力 *competence* 을 해명하는 일인 것이다.

變形文法の 일반적 특징을 항목별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有限한 文法規則으로 無限한 文을 生成해 낼 수 있는 言語能力의 창조성을 해명하려는 것으로, 文法은 모든 文法的 連鎖를 생성해 내는 裝置라는 관점에서 유기적 規則 체계의 有限文法の 성격을 띠고 있다.

② 잠재적 言語能力은 어느 민족·인종과 관계없이 인간이면 누구나 先天的으로 지니고 있다는 가설에 입각하고 있다.

③ 構造文法이 歸納的이며 上向的으로 資料의 類型分類 등을 중시하는 데 반하여, 變形文法은 演繹的이며 文에서 출발하는 下向性으로 제한된 현지 조사나 階層分離·形式基準의 방법, 곧 分析單語 출현 빈도 등도 중요시하지 않고 거의 무시한다.

④ 言語分析의 目標은 文法的 文을 非文法的인 文에서 구별하고 文法的 文의 구조를 보이는 데 있다.

⑤ 반드시 記號와 規則으로 추상화된 가설적 구조를 설정하고 경험에 아닌 生成能力과 啓示的 豫報能力의 해명, 基底形式에서 파생된 관계 등을 일정한 公式으로 전개한다.

⑥ 變形文法の 理論은 시대와 연구자에 따라 여러 유파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初期理論, 擴大理論, 標準理論, 生成意味論, 關係文法 등 다기하다. 이들 理論의 공통점은 文法的 記述에 있어 變形 내지 變形規則이라 불리는 規則이 불가결한 점과 生成理論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變形·生成文法이라 불리는 것이다.

變形文法에서 定義하는 文法的 概念은 앞에서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文法은 言語의 文法的 連鎖를 生成하는 裝置인 有機的 規則體系’이다. 그러므로 國文法은 ‘國語의 잘 짜여진 바른 文을 詳述하고, 그들 각각에 構造的

記述을 부여하는 裝置'라고 말할 수 있다. '국어의 잘 짜여진 바른 文'을 지도하는 것은 學校文法の 중요한 목표인 것이다.

지금까지의 文法敎育은 品詞나 音韻에 편향된 경향을 걸어 왔다. 構造文法에서도 音韻에서 출발하여 形態로, 형태에서 統辭로의 해명에 接近했다. 그러나, 그 중에서 統辭部門은 별로 중시하지 않았다. 이에 반하여 變形文法에서는 '文'을 중시한다. 統辭的 사실에서 출발하여 意味論的 혹은 音韻論的 해석에 접근한다. 文法敎育은 文法的인 文을 非文法的인 文에서 구별하고, 文法的 文의 構造를 인식하고 사용하는 데 있다. 文法敎育이 文에서 시작하여 文으로 끝나는 統辭論이 중시되어야 함을 示唆하는 것이다.

또한 言語習得에 대한 태도와 방법면에서 構造文法에서는, 言語란 後天的 *a posteriori* 경험으로 습득되는 것이므로, 空白의 石板에 마치 우표수집이나 수저를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듯이 반복과 연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合理論에 근거한 變形文法에서는 人間에게는 선천적으로 言語能力이라고 하는 生來的 能力이 있어서 言語 經驗能力은 言語를 形成하는 것이 아니라 先得的인 言語能力을 활동하게 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文法敎育은 이 理想的인 發話者의 양성이라는 점에서 學校敎育의 성격과 일치한다.

學問文法과 學校文法은 서로 대립되거나 상치되는 것이 아니다. 학문 방법의 발달에 따라 얼마간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普遍的 規則이 선택되고 精化하여 이를 敎育적으로 지도 運用하는 것이 學校文法이다.

3. 學校文法과 敎科書

『大韓文典』(1908)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文法書는 規範文法的 성격을 지닌 文法書로서 敎育文法的 敎材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文法書는 저자에 따라 그 內容·體系·用語들이 달랐으며 개인의 독자적 學識을 學生들에게 강요하는 文法書들이 많았다.

1963년 7월 25일 文敎部는 「學校文法 統一案」을 마련하여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統一案의 주된 내용은 品詞分類를 9品詞로 한 것과, 252개의 文法用語를 통일한 것이다.

그후 1967년부터 中學校가 1968년부터 高等學校의 敎科서가 1963년 2월 15일(문교부령 제 121호)에 공포한 새 敎育과정에 의거하여 개편 실시하게 되어 文法敎科書도 文敎部制定 학교문법통일안에 준거, 中學校 文法敎科書 16

중, 고등학교 文法教科書 13종이 문교부 검인정으로 편찬 教育되었다. 文法教科書의 내용은 品詞分類에 있어서 指定詞(잡음씨)도 許容하게 되어 9 品詞와 10 品詞體系로 다시 갈라져 統一을 이루지 못하고 그 下位體系는 다양한 분류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일선 교단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그대로 남게 되어 지도상의 混線을 빚기도 했다.

따라서 국어교육상 및 言語政策上 實用的이고 規範的인 學校文法은 그 體系의 合理的인 통일이 절실히 요청되었다.

그후 中學校 教育課程은 1973년 8월 31일(문교부령 제 325호) 개정 공포되어 中學校에서 독립 教科로 사용하던 文法教科書가 없어지고 中學校에서 指導해야 할 文法指導事項을 選定 系列化하여 국어독본 시간에 지도하도록 變更되어 1979學年度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우선 過渡期的 措置로 간략한 설명을 붙인 文法要素表를 中學國語 教師用指導書 부록으로 게재하고 指導書 각 大單元 末尾에 文法 小單元을 넣어 학생들을 지도하도록 했다.

人文系 高等學校 教育課程은 1974년 12월 31일(문교부령 제 350호)에 개정 공포되었고 종전에는 人文系 고등학교 국어 II에 포함되었던 <文法>教科가 국어 I에 포함되어 人文系(문과)와 自然系(이과)의 모든 학생이 이수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따라서 2種(검인정) 도서인 文法教科書는 題材選定の 基準이 달라져, 이 기준에 따라 다시 제작 檢認하여 1978년 7월 5개종이 채택되어 1979學年度부터 이 文法書를 學校文法の 교재로 사용하였다(金完鎭 外 1, 金敏洙·許雄·李喆洙 外 1, 李應百 外 1 등 5種).

다시 1981년 12월 31일(문교부 고시 제 442호)에 教育課程이 개정되어 국어과는 그 領域이 ‘표현·이해’, ‘언어’, ‘文學’ 등 3영역으로 구성되어 국민학교부터 ‘언어’, 즉 文法指導가 강조되었다. 국민학교 3학년부터 국어 교과서의 단원 말미에 ‘말익히기’ 공부할 문제를 실어 言語事項을 지도하도록 했고, 중학교에서도 국어 교과서의 각 單位 말미에 ‘문법’ 학습문제를 실어 단계적으로 文法指導를 하도록 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의 文法교과는 국어 II에 포함시켜 일반계 고등학교의 인문·사회 과정에서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종전에 2種(검인정) 도서인 5개종의 文法 교과서가 있었던 것이 1종(국정)도서인 1개종의 문법 교과서로써 지도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하여 1985학년도부터 새로운 국어과 教育課程에 따른 교과서를 가지고 지도할 계획으로 進行되고 있다.

II. 國語科 敎育課程과 文法

1. 國語科 敎育에서 文法の 位置

國語科敎育은 國語의 敎育이다. 國語는 우리말, 곧 韓國의 言語다. 이 言語는 인간을 전제로 한 언어이며, 생활을 전제로 한 言語다. 우리는 언어에 의하여 思考하고 生活한다. 언어의 効果적인 사용에 의하여 個人生活·社會生活·國民生活 전반에 걸쳐 生活를 향상시킬 수도 있다. 그러므로 國語敎育은 하나의 言語敎育으로서 모든 方面에 걸쳐 生活를 누리고 國民文化를 창조하며, 국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知識·능력·技能·態度·습관 등을 습득시키기 위한 學習과 指導를 말하는 것이다.

국어敎育의 領域을 말하기·듣기·읽기·쓰기의 4영역으로 나누기도 하고, 理解力·表現力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도 있고, 또한 말하기 언어생활, 쓰기 언어생활 등으로 나눌 수도 있다.

새 國語科 敎育課程에서는 국어의 本質을 중시하고 國語科 敎育內容을 明示하기 위하여 그 영역을 技能(表現·理解), 言語, 文學으로 나누고 있다. 高等學校에서는 국어 I과 국어 II로 構成하였다. 국어 I은 國民敎育, 中敎育과 같은 領域으로 構成하고, 국어 II는 국어 II를 領域別로 深化하되 國語科의 학문적 영역으로 構成하여 文法·文學·作文으로 定하였다. 文學은 편의상 現代文學과 古典文學으로 나누었으므로 국어 II는 4領域이 된 것이다. 이 中에서 現代文學과 作文은 人文계 高等學敎生이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고, 文法과 古典文學은 人文社會科 學生들만 이수하게 되었다.

國民敎育에서의 文法指導는 「바른생활」의 공부할 문제와 「국어」敎科서의 各 單元 말미에 「말익히기」라는 文法 學習內容이 문제 중심으로 계열화되어 있어서 이를 국어 敎育시간을 통하여 지도하도록 했으며, 中學校에서는 中前에 있었던 獨立된 文法 敎科서가 없어졌고, 또한 獨立 敎科로서의 文法시간을 따로 두지 않고, 국어 敎育시간에 다루도록 했다. 文法學習 內容은, 「중학국어」의 各 單元의 말미에 있는 「文法」으로서, 역시 문제 중심의 學習 內容이다. 高等學校 국어 I에서도 各 單元 말미에 있는 學習문제 가운데 문법 指導事項을 (5-1)에 포함시켜 지도하도록 했다. 결국 獨立된 文法 敎科서는 국어 II에만 있게 된 것이다.

그러면 文法은 國語科 敎育에서 어떠한 性격을 지니고 있으며 어디에 位置하는가. 文법은 언어에 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文法敎育은 말하기, 듣

기, 읽기, 쓰기의 언어생활 가운데 항상 포함되고 있다. 文法教育이 달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 언어활동을 훌륭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언어 운용면에 있어서도 效率的으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국어의 체계를 알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文法 교육과 국어교육의 영역과는 표리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것이지 對立的 관계나 종속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文法은 獨立 교과로서 학습하는 것은 가능하며 의의가 있으나, 文法 교육은 너무나 전문적인 文法學이라고 하는 학문으로서, 文法理論의 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체계문법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文法을 하나의 교양으로서 학습하는 경우도 고등학교에서의 바람직한 文法 교육이 아니다. 문법교육은 우리의 언어생활 속에서 실제로 직면하는 언어적 사실의 일반적 질서, 곧 文法的 知識을 학습하고 자기의 언어생활을 반성하는 能力을 기르며 동시에 언어표현의 요령을 습득시키는 실제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2. 文法教育의 必要性

生來의 母語者는 直觀文法(파로 文法을 배우지 않고서도 저절로 몸에 익히게 된 文法性的 認識能力)의 구현자로서 어린 아이라도 상당한 言語感覺을 지니어 文法에 맞고 안맞는 것을 直觀에 의해 판단해 낼 수 있으며, 스스로 文法에 맞는 無限한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生得的인 文法性만으로는 오릇한 言語生活을 영위할 수 없다. 학습과 연마를 요하는 것이다.

국어는 情緒의 言語로서 論理性이 결여되어 있다. 小集團 社會에서는 모르나 大集團 社會에서는 論理的인 표현이 중요하다. 論理的인 결여를 극복하려면 무엇보다도 文法指導가 필요하다. 또한 文法教育의 必要性을 현대국어의 混亂에서도 찾을 수 있다. 현대국어의 音韻・語彙・構文面에서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보다 의도적인 文法教育이 필요하다.

흔히 사람들은 “文法을 모르고도 언어생활을 누릴 수 있다”라든지 혹은 “文法을 알고 있어야만 올바르게 효과적인 말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文法은 몰라도’에서의 ‘文法’이란 學問的으로 정리된 文法體系를 의미한다면, 확실히 그것을 모르고 있어도 언어생활이 가능하다.

한편 “文法을 알고 있어야만”에서 ‘文法’이란 말도 文法體系의 知識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언어의 효과적인 사용’이라든지 ‘올바른 말의 사용’이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文法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자각적으로 사용하는 일’ 또는 ‘말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갖는 일’ 곧 文法意識을 말하는 것이다. 文法意識은 文法知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非文法的 문장, 잘못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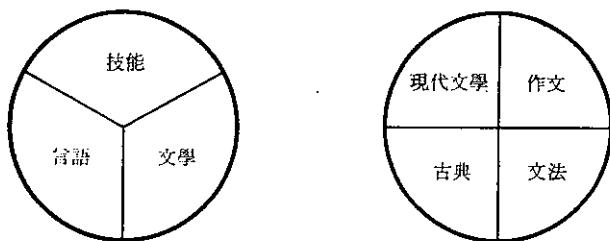
말을 거침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文法知識이 부족하기 때문이기에 앞서 文法意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文法意識을 예민히 하여 언어를 자각적으로 사용하는 일’만이 바로고 효과적인 언어사용으로 이끄는 것이다.

이러한 文法意識을 발전성 있게 하기 위하여 文法教育이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면 표준어 사용의 지도를 할 때, 기초단계로서 잘못된 말을 하나 하나 일일이 지적하면서 敎正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와 같은 지도방법은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발전성도 없다. 動詞의 활용방법이라든지 助詞의 機能 등을 알게 함으로써 효과적인 학습이 可能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말의 秩序性 내지는 規範性을 인식하고, 文法意識을 예민하게 하여, 거기에서 얻은 文法的 知識을 살리면서 표준말의 자각적 사용을 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국어교육 내지는 바람직한 언어생활의 발전적 방향이 기대되는 것이다.

고등학교에 있어서, 文法教育의 目標은 국민학교에서 비롯하여 중학교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진 文法教育, 곧 文法的 자각 내지는 文法知識을 예민하게 하는 일을 더욱 단계적으로 지적수준을 높이고 체계화하여 그 文法的 知識을 실제 언어생활에 살릴 수 있도록 함에 있다. 文法的 知識이란 文法學의 암기적 지식을 이르는 말이 아니라 몸에 밴 文法知識, 곧 말의 모범적 論理性 내지는 秩序性을 자각한 결과의 지식을 말한다.

3. 國語科 教育課程에서의 言語事項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새 國語科 教育課程에서는 國語의 本質을 중시하고 국어과의 領域을 技能·言語·文學으로 나누었다. 고등학교의 국어과를 국어Ⅰ과 국어Ⅱ로서 構成하였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국어Ⅰ은 技能·言語文學으로 구성하고, 국어Ⅱ는 국어과의 학문적으로 深化된 영역으로 구성하여 文法, 文學(현대문학·고전문학), 作文으로 구성하였다.



새 國語科 教育課程에서 제시하고 있는 文法指導事項을 항목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國語科 教育課程에서의 言語事項

1. 國民學校

教科目標	學 年 目 標	內 容		指導 및 評價 上의 意點
		表 現 · 理 解	言 語	
(2) 국어에 관한 초보적인 이해를 가지게 한다.	<1학년> (가) 특색한 목소리로 활발하게 말하게 한다. (나) 한글의 짜임을 알게 한다.	▶말하기 (2) 예사말과 높임말에 유의하여 말한다. (3) 분명한 발음으로 말한다. ▶쓰기 (4) 마침표와 물음표가 있음을 안다.	(1) 한글 낱자의 모양, 이름, 순서를 안다. (2) 낱자가 모여서 소리를 나타내게 됨을 안다.	(1) 지도 (가) 국어과는 그 영역을 '표현·이해', '언어', '문학'으로 구성하였다. '표현·이해'는 국어사용의 기능을, 언어는 국어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극히 초보적인 지식을 지도하되, 상호 관련되게 한다.
	<2학년> (나) 한글의 짜임을 알게 한다.	▶말하기 (2) 예사말과 높임말에 유의하여 말한다. (3) 분명하고 정확한 발음으로 말한다. ▶쓰기 (4) 마침표, 물음표, 쉼표가 있음을 안다.	(1) 받침이 있음을 안다. (2) 글자와 발음이 달라지는 것이 있음을 안다.	(나) '언어'에서는 그과서에 나오는 용어 이외의 전문용어는 지도하지 말고, 예를 통하여 기본 개념을 이해시킨다. (2) 평가 (가) 표현·이해의 평가는 말하기, 듣기, 읽기,
	<3학년> (나) 문장의 기초적인 짜임과 종류를 알게 한다.	▶말하기 (2) 예사말과 높임말을 바르게 쓴다. (3) 정확한 발음과 알맞은 크기의 목소리로 말한다. ▶쓰기 (6) 어법과 맞춤법에 맞게 글을 쓴다. (9) 여러가지 문장 부호를 바르게 쓴다.	(1) 낱말이 일정한 순서로 모여야 문장이 됨을 안다. (2) 문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짐을 안다. (3) 문장에는 풀이款 하는 문장, 묻는 문장, 시키는 문장이 있음을 안다. (4) 두 문장이 이어져 한 문장이 될 수 있음을 안다. (5) 낱말에는 모양이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이 있음을 안다. (6) 받침은 다른데 발음이 같게 나는 것이 있	(나) '언어'에서는 그과서에 나오는 용어 이외의 전문용어는 지도하지 말고, 예를 통하여 기본 개념을 이해시킨다. (2) 평가 (가) 표현·이해의 평가는 말하기, 듣기, 읽기,

		음을 안다.	쓰기를 교루 평가한다.
<p><4 학년> (마) 문장의 짜 임, 종류, 호 응, 확장을 알 게 한다.</p>	<p>▶말하기 (2) 표준말과 사투리를 의식하며 말한다. (3) 정확한 발음과 알맞 은 속도로 말한다.</p> <p>▶쓰기 (6) 어법과 맞춤법에 맞 게 글을 쓴다. (9) 여러 가지 문장 부 호를 바르게 쓴다.</p>	<p>(1) 문장이 확장됨을 안 다. (2) 문장의 두 큰 부분 이 의미상으로 어울려 야 함을 안다. (3) 문장에는 풀이하는 문장, 묻는 문장, 시 키는 문장, 감탄을 나 타내는 문장, 권유하 는 문장이 있음을 안 다. (4) 끝을 높여서 말해야 하는 문장이 있음을 안다. (5) 두 문장이 이어져 한 문장이 되거나, 한 문장이 나뉘어 두 문 장이 될 수 있음을 안 다. (6) 모양이 바뀌는 말에 서 바뀌지 않는 부분 과 바뀌는 부분을 구 별하고, 그 으뜸이 되 는 말을 안다. (7) 발침이 다음 음절에 서 발음되는 때가 있 음을 안다.</p>	<p>(나) ‘언어’ 의 평가는 언 어 지식을 적 용할 수 있는 능력을 중심 으로 하여 평 가한다.</p>
<p><5 학년> (마) 문장의 짜 임, 종류, 호 응, 확장을 알 게 한다.</p>	<p>▶말하기 (3) 표준말로 말한다. (4) 어법에 맞게 말한다.</p> <p>▶쓰기 (7) 어법과 맞춤법에 맞 게 글을 쓴다.</p>	<p>(1) 문장이 확장됨과 문 장의 각 부분이 다른 말로 대치될 수 있음 을 안다. (2) 문장의 두 큰 부분 이 시간상으로 어울려 야 함을 안다. (3) 문장에는 풀이하는 문장, 묻는 문장, 시 키는 문장, 감탄을 나 타내는 문장, 권유하 는 문장, 약속하는 문 장이 있음을 안다. (4) 낱말에는 이름을 나 타내는 것과 그 말을</p>	

		<p>대신하는 것이 있음을 안다.</p> <p>(5) 낱말에는 높임을 나타내는 것이 있음을 안다.</p> <p>(6) 받침이 발음되는 때와 발음되지 않는 때가 있음을 안다.</p>
<p><6학년></p> <p>(마) 문장의 종류, 호응, 확장 및 낱말의 여러 갈래를 알게 한다.</p>	<p>▶말하기</p> <p>(4) 표준말로 말한다.</p> <p>(5) 어법에 맞게 말한다.</p> <p>▶쓰기</p> <p>(7) 어법과 맞춤법에 맞게 글을 쓴다.</p>	<p>(1) 문장의 두 큰 부분이 높임과 낮춤이나 논리상으로 어울려야 함을 안다.</p> <p>(2) 문장에는 꾸미는 부분이 있음을 안다.</p> <p>(3) 낱말에는 소리나 모양을 시늉하는 것이 있음을 안다.</p> <p>(4) 낱말에는 옛날부터 있어온 것과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것이 있음을 안다.</p> <p>(5) 낱말에는 한 음절로 된 것과 여러 음절로 된 것, 두 낱말이 합쳐져서 한 낱말로 된 것이 있음을 안다.</p> <p>(6) 말에는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이 있음을 안다.</p> <p>(7) 말에는 표기와 발음이 다른 것이 있음을 안다.</p> <p>(8) 낱말에는 뜻이 같고 느낌이 다른 것이 있음을 안다.</p>

2. 中學校

教科目標	學 年 目 標	內 容		指導 및 評價 上의 留意點
		表 現 · 理 解	言 語	
	<p><1학년></p> <p>(마) 국어의 여러 규칙에 관한 기</p>	<p>▶말하기</p> <p>(4) 표준말로 어법에 맞게 말한다.</p>	<p>(1) 문장의 성분을 안다.</p> <p>(2) 짜임에 따른 문장의 종류를 안다.</p>	<p>(1) 지도 (가) 국어과는 그 영역을 '표현·이해'</p>

	초적인 지식을 가지게 한다.	▶쓰기 (8) 어법에 맞게 글을 짓는다.	(3) 품사의 뜻과 종류를 안다. (4) 음운 변화의 주요규칙을 안다.	‘언어’, ‘문학’으로 구성하였다. ‘표현·이해’는 국어 사용의 기능을, ‘언어’는 국어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지식을 지도하되 상호 관련되도록 한다. (2) 평가 (가) ‘표현·이해’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고루 평가하도록 한다. (나) ‘언어’는 언어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중심으로 하여 평가한다.
(2) 국어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가지게 한다.	<2학년> (마) 국어의 여러 규칙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가지게 한다.	▶쓰기 (8) 어법에 맞고 통일성 있게 글을 짓는다.	(1) 문장 성분의 기능을 안다. (2) 체언과 조사의 기능을 안다. (3) 용언의 어간과 어미의 기능을 안다. (4) 음운 변화의 체계를 안다.	
	<3학년> (마) 국어의 특징과 여러 가지 규칙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가지게 한다.	▶쓰기 (8) 어법에 맞고 통일성 있게 글을 짓는다.	(1) 문장의 여러가지 호응 규칙을 안다. (2) 짜임에 따른 단어의 종류를 안다. (3) 여러 품사의 특성을 안다. (4) 음운 변화의 주요 원인을 안다.	

3. 高等學校

教科目標	국어 1의目標	言語	指導 및 評價上의 留意點
(2) 언어와 국어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가지게 한다.	(5) 언어의 본질과 국어의 특징 및 국어사의 개략을 이해하고, 국어의 여러 규칙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가지게 한다.	(가) 문장의 구조와 그 성분의 확장을 안다. (나) 품사의 전성과 그 기능을 안다. (다) 단어의 구조를 알고 형태를 분석한다. (라) 음운의 종류와 그 체계를 안다. (마) 언어의 본질과 국어의 특징을 안다. (바) 방언과 그 분포에 대하여 안다. (사) 국어사의 개략을 안다.	(1) 지도 (가) 국어과는 그 영역을 ‘표현·이해’, ‘언어’, ‘문학’으로 구성하였다. ‘언어’는 언어의 본질과 특징에 관한 지식을 지도하되, 상호 관련되도록 한다. (다) 언어의 지도는 되도록 학생들의 언어 생활과 관련지어 이루어지도록 한다. (바) 기본 개념과 원리(언어학의 원리)는 적용에 역점을 두고 지도한다. (2) 평가 ‘언어’는 체계적인 언어 지식과 그 적용 능력을 중심으로 하여 평가한다.

국어 II의 目標	富 語・文 法	指導 및 評價上의 留意點
(4) 언어 현상을 언어학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p>(가) 국어의 개념을 알고, 비문법적 문장을 가려낸다.</p> <p>(나) 언어의 본질을 알고, 국어의 구조 분석을 한다.</p> <p>(다) 문장 성분을 구분하고, 국어의 구분 분석을 한다.</p> <p>(라) 문장의 구조와 그 요소 사이의 호응을 안다.</p> <p>(마) 문맥적 의미를 알고, 문장 부호를 바르게 쓴다.</p> <p>(바) 품사를 분류하며, 형태 분석을 한다.</p> <p>(사) 품사의 하위 분류와 그 특성을 안다.</p> <p>(아) 속어의 유형과 품사의 전성을 안다.</p> <p>(자) 음운의 종류와 그 체계를 안다.</p> <p>(차) 음운 변화의 조건과 규칙을 안다.</p> <p>(카) 국어와 국자의 특징과 국어 맞춤법을 안다.</p> <p>(타) 국어 애호와 국어 국자 문제에 대하여 바른 생각을 가진다.</p>	<p>(1) 지도</p> <p>(가) 문법의 단위는 3~4 단위로 한다.</p> <p>(나) 문법은 인문 사회 과정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수시킨다.</p> <p>(바) 문법은 국어의 본질을 알게 하는데 중점을 두어 지도하고, 용어의 개념을 분명히 지도한다.</p> <p>(2) 평가</p> <p>(다) 문법은 체계적인 문법지식과 그 적용능력을 중심으로 하여 평가한다.</p>

〈다음호에 계속〉